

광주형일자리 시즌2 '컨트롤타워' 발족

추진위 출범...미래차 전환 모색 특화단지 등 4개 분과 실행계획 4대전략·10대과제 국비확보 역할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미래차 대전환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출범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8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첫 출범회의를 갖고 상반기 내로 특화단지·인프라·기업지원·사업 등 4개 분과를 구성해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4개 분과 중 특화단지분과는 100만평 규모의 특화단지 입지 및 조성을, 인프라분과는 미래차 전환 7대 핵심인프라 구축 업무 등을 진행하게 된다.

기업지원분과에서는 미래차 전환 일괄(One-Stop) 지원센터 운영, 기업협의체 운영, 노사상생 전환, 금융지원 특례제도, 부품기업 사업재편 및 전환 지원, 지역산업 위기 예방 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사업분과는 미래차 전환 사다리 지원사업, 부품군별 컨설팅과 맞춤형 전환지원, 미래차 연구

개발(R&D) 특화교육센터 과제 등을 추진한다. 추진위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첫 프로젝트 중 하나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에픽, 광주그린카진흥원,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협약기관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 전문가들과 자동차 기업협의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다.

추진위는 광주 자동차산업 미래 100년 토대 마련을 목표로 미래차 부품공장 유치 지원과 광주 미래자동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확정, 4대 전략과 10대 과제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 등 대정부 건의, 실무분과 보고 현안사업 승인, 광주형 일자리 시즌2 홍보활동 등을 맡게 된다.

이날 추진위원들은 "미래 자동차로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대부분의 자동차 부품기업이 위기위기와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쉽게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광주 시에서 발빠르게 미래차 대전환을 위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와 연계한 부품공장 유치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하며, 광주형 일자리 시즌2 사업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캐스퍼 대박, 청년 일자리 창출, 광주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등 큰 성공을 거뒀지만 관련 부품산업이



이용섭 광주시장이 18일 오후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차 대전환 광주형일자리 시즌2 추진위원회 창립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없어 아직은 미완성"이라면서 "연관산업이 많고 파급효과가 큰 자동차산업 특성상 광주형 일자리 시즌2는 광주의 성공은 물론 대한민국의 새로운 장을 여는 기회가 되는 만큼 그동안 쌓아온 위원님들의 지혜와 경험을 토대로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10일 친환경 자동차산업 메카도

시를 위한 미래차 부품클러스터 조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세계적 수준의 미래자동차 부품공장 유치와 2030년 부품기업 100개사 미래차 부품업체 전환을 목표로 제시하는 '광주형 일자리 시즌2'를 공식 선언하고 이를 위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조성 전남 5곳 문체부 공모 선정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공모사업에서 전남도내 강진다산박물관 등 5개 공립 박물관·미술관이 선정됐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국비 9억원을 지원받아 총 18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공립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에는 강진다산박물관, 영암도기박물관,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 무안군오승우미술관, 4곳이,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사업에는 해남공룡박물관 1곳이 선정됐다.

강진다산박물관은 스마트 전시체계를 활용한 온라인·비대면 원격 교육시스템 및 다산 유물의 발굴, 보존, 전시 등 정보를 입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가상현실(VR) 플랫폼을 구축, 스마트 전시체험 서비스를 구현한다. 영암도기박물관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스마트 큐레이터 시스템(도슨트 서비스) 및 소장 유물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스마트 문화 콘텐츠 시스템을 개발한다.

고산윤선도유물전시관은 소장품 디지털 복원 등 아카이브 구축과 함께 스마트미디어 아카이브월 실감체험 콘텐츠를 개발해 전시 콘텐츠의 전달력을 강화한다. 무안군오승우미술관은 온라인 가상현실 미술관 구축 및 증강현실(AR) 스마트 도슨트 앱 구축을 통해 스마트 IT 시대 대비 지속가능한 전시시스템을 구축한다.

해남공룡박물관은 공룡 박사교 화석을 활용한 실감형 콘텐츠 및 체험존을 구성해 현장 몰입체험이 가능한 융복합 공룡콘텐츠를 개발할 계획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화정동 희생자 분향소 조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19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추모했다.

전남도, 해양수산업 맞춤형 지원 나선다

간편식 개발 등 창업·육성 지원

전남도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자와 유망기업을 발굴해 창업부터 육성까지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해양수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은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 지원과 기업 맞춤형 육성 지원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도약 지원 등 총 14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전남지역 기업이나 예비창업 42개 기업을 선정해 프로그램에 따라 1000만원에서 40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원한다.

전남도 해양바이오연구센터,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모집 공고를 했다. 오는 24일 까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jmbic1726@naver.com)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워드 코로나 시대 식품 소비성향 변화에 맞춘 K-씨푸드 및 가정간편식을 중점 개발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도내 해양수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원금의 80%를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해양수산업투자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해양수산업 45개사를 지원해 연 매출 8.3% 증대, 320명(청년고용 141명)의 신규 고용 창출, 6개사(청년창업 2개사) 신규 창업 등의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경제상황에서 소비자 성향에 맞는 해양수산물 가공제품 개발, 창업 기술 지원, 컨설팅, 마케팅까지 전방위적 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관광도 달빛동맹'

광주·대구 교차 단체여행 인센티브

광주시가 영호남 관광교류 지원 사업인 '달빛동맹'을 추진한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대구 여행사에서 광주시에 사전 협의·신청하고 15명 이상 대구 시민의 광주 여행을 유치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광주 여행사에서 광주 시민의 대구 여행을 유치해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는 청소년 대상 당일 여행 건당 30만원, 1박 60만원이다. 성인은 당일 40만원, 1박 이상 80만원이 지원된다.

'달빛동맹'은 관광 교류 증대를 통한 실질적인 영호남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진행 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 평균 830명의 대구 시민이 광주를 방문했으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지원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2022년 광주·대구 달빛동맹' 관련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배 광주시 관광진흥과장은 "광주는 무등산으로 대표되는 자연관광지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 및 양림동 역사문화마을 등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특색 있는 자원을 보유한 도시"라면서 "대구 시민이 광주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고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김치 자동화 장비 공급 제조업체 생산비 절감 기대

전남도가 도내 김치 제조업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배추김치 양념 속 넣기 설비 등 김치 자동화 장비 공급 사업에 9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수입산 김치 가격이 1kg당 860원으로 국산김치 2870원보다 3배가량 저렴한데 따른 것으로, 생산비를 낮춰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올해부터 신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배추김치 양념 속 넣기 설비, 양념 혼합기 등의 소형장비 등이다. 배추김치 양념 속 넣기 설비는 올해 여수 '강순의 명가', 영암 '왕인식품', 장성 '새벽밥' 등 3개소에 공급하고 총 4억 원을 지원한다. 앞으로 김치 생산비의 획기적인 절감이 기대된다. 1시간 기준 4명이 수작업으로 280kg을 생산하는데 비해, 이 설비를 사용하면 5배나 많은 1500kg까지 양을 늘릴 수 있다.

아채 절단기, 양념 혼합기, 자동포장기 등 소형 장비는 업체당 1500만원 이내로 총 5억 원을 투입해 도내 김치 제조업체에 33대를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치 생산설비 자동화, 김장 채소류 수급조정센터 구축 등 지원으로 생산비를 크게 절감해 전남산 김치의 내수시장 판매와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곡성 '육과맛있는김치'에서 지난 18일 김치 생산업체,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배추김치 양념속넣기 설비' 가동 시연회를 열어 김치 생산비 절감기술 보급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배 나주곰탕 말고 또 있어?

몰라도 너무 몰랐던 천년고도 나주의 매력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펼쳐진다

나주의 전설과 매력적인 역사문화를 찾아서
흥어·나주곰탕의 원조에서 즐기는 살아있는 맛
굽이 도는 영산강가 카페에서 차 한잔 어떠세요?
송일준 PD와 함께

송일준 PD 제2권 15000원

송일준PD 제주도 한 달 살기

전국 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송일준 PD 제3권 15000원

스타북스 Tel: 02-723-1188 | Fax: 02-735-5501 | 이메일: starbooks22@naver.com